

학고재 기자간담회

임충섭

달luna

I. 전시 소개

1. 전시개요

일 시 : 2010년 5월 5일 - 5월 30일

장 소 : 학고재갤러리 전관 (서울 종로구 소격동 70/77) T: 720-1524

출품작 : 총 40여 점 전시

설치 작품 <월인천강月印千江>을 비롯하여 <느린 걸음>, <채식주의자Ⅲ> 등의

부조 작품, <풍경>연작, <Sky@.com>연작 등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품들을 망라

전시담당자: 정지영 (720-1524/010-5234-2208)

웹하드 ID_hakgojaeart, PW_guest, 폴더명_임충섭 달luna

2. 전시내용

뉴욕에 거주하며 한국과 미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임충섭(1941~)이 4년 만에 학고재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다. 임충섭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월인천강月印千江>과 함께 2000년 이후부터 제작해온 작업들을 전시하며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발표하는 <월인천강>은 비디오, 사운드, 물과 물고기를 이용한 설치 작품이다. 임충섭은 이 작품에서 자연과 문명, 실재와 허상 등 대조되는 두 개념을 연결한다. <두루미 두루마기>, <채식주의자Ⅲ>, <자기(磁器)> 등은 구체적 사물들을 여러 차례 드로잉하는 과정을 거쳐 변형하고 추상화한 이미지를 동서양의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제작한 부조 작품이다. 임충섭은 이 작품에서 유년시절의 기억과 한국의 미(美), 불심 등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석 풍경>은 임충섭이 지난 15년간 꾸준히 제작해온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미적인 기호와 조형적 이상향을 비롯해 일상에서 채집한 조형 개념 등을 '화석화(fossilization)' 하여 흔적을 남긴다. <오름·내림>은 한국의 전통 '베짜기'가 연상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명주실은 단절과 소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오브제로 임충섭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떠올리게 해 문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자신만의 풍경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풍경>연작, 문명 속 자연의 모습을 아상블라주(assemblage)기법으로 12개의 상자에 담은 <Sky@.com> 연작 등 고희(古稀)의 나이에 이르러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도전한 40여 점의 작품을 학고재 전관에서 선보인다.

3. 전시의 맥

-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여백을 발견하다.
- 〈월인천강月印千江〉, 하늘과 지상을 잇는 다리를 놓다.
- 퇴계(退溪)의 철학으로 현대 미술의 질문에 답하다.
- 미술은 '내 마음 파내기'
- 추상화(抽象化)의 과정 속에 마음의 본질과 정수를 찾다.
- 동양적 감수성의 원천을 '달' 에서 찾다.
- 햇님은 달님의 여백이고 달님은 햇님의 여백이다.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여백을 발견하다.

임충섭은 자신의 작품을 “현대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얻어진 여행담” 이라고 말한다. 그가 사는 곳은 현대 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도시적 속성이 두드러진 뉴욕이다. 유년기에서 비롯된 자연에 대한 향수를 품고 그는 매주 도심 속에서 자연을 찾아 한 시간 남짓 드라이브를 한다. 그는 이를 ‘의식여행’ 이라 일컫는다. 이 여행의 시간 속에서 문명의 틈새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을 발견하고 때로는 단절되어 있는 듯, 때로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둘 사이에 ‘미술언어’ 로 조형적 다리를 놓아가는 것이 그의 작업이다. 임충섭은 자연과 문명 사이에서 동양화의 여백을 발견한다. 그의 작품에서 여백은 ‘비어있는 곳’ 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결국 임충섭의 작업은 여백을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 하늘과 지상을 잇는 다리를 놓다.

“〈월인천강〉에서 나는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지상과 하늘의 연계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임충섭 작가노트中

비디오에 담긴 달의 이미지는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그 모습을 온전히 보였다 감추었다 하며 작은 연못을 비춘다. 이는 스님의 목탁 소리, 계곡의 물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과 함께 어우러지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못 속에는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보이는 흑(黑)색과 백(白)색의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라 이 작품의 퍼포머(performer)이다. 이들은 투명한 연못의 물을 돋보이게 하며 달빛 아래서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자연’ 스러운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한다. 선(禪)양식의 고요한 정원을 연상시키는 〈월인천강〉은 임충섭이 지난 3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이다.

임충섭은 〈월인천강〉을 통해 “하늘과 지상을 연계하고 싶었다.” 고 한다. 여기서 하늘은 ‘절대적 자연’ 을, 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 를 말한다. 임충섭은 달빛으로 인해 하늘과 물에 모두 ‘달’ 이 존재하는 것에서 착안해 〈월인천강〉으로 ‘하늘’ 과 ‘땅’ 의 연계를 시도했다. 임충섭은 이렇듯 분절된 개념을 ‘자연의 요소’ 와 ‘기술적 요소’ 를 통해 ‘명상적인 방법’ 으로 연결했다.

퇴계(退溪)의 철학으로 현대 미술의 질문에 답하다.

〈월인천강〉은 원래 불교의 교리로, 직역하면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춘다’ 라는 뜻이다. 달빛이 천 개, 즉 모든 강을 비추듯 부처님의 은덕이 모든 백성에게 비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은혜는 마음속에 부처를 담은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월인천강〉에 대한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년)과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년)의 대화는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 “물에 비친 달도 달이다.” “물에 비친 달은 달이 아니다.” 를 놓고 조선의 두 철학자는 실재와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춘섭은 자신의 〈월인천강〉을 두고 “물에 비친 달 또한 달이다.” 라고 주장한 “이황 이론이 승리” 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실재와 허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이다. 임춘섭은 동양의 철학자 이황이 이미 16세기에, 오늘날 현대 미술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앞선 고민과 답변을 모색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이론을 연구하고 응용하는데 반해 임춘섭은 〈월인천강〉에서 동양의 철학자 이황의 이론을 빌어 자연의 진리인 순환과 순리를 거슬러 폭력적으로 변질된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임춘섭은 이처럼 서양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정신성을 이어온 작가로 주목받는다.

미술은 ‘내 마음 파내기’

〈월인천강〉에서 물속의 ‘달’ 이 ‘달’ 일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비친 달빛 때문이 아니라 그 달을 보는 ‘마음’ 때문이다. 모든 행동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임춘섭은 작가가 미술 언어로 형상화하는 이야기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주 ‘의식 여행’ 을 떠나는 등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묻혀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결국 작품은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는 것이므로 임춘섭은 미술이 ‘내 마음을 파내는 일’ 이라고 말한다.

추상화(抽象化)의 과정 속에 마음의 본질과 정수를 찾다.

〈깨달을 각(覺) 8폭 병풍〉은 임춘섭이 한국의 전통 8폭 병풍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깨달을 각(覺)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한 그는 이것을 이용해 병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병풍 어디에서도 각(覺)의 형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임춘섭은 이 병풍을 만들기 위해 각(覺)을 여러 번 드로잉 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느린 걸음〉은 사람과 말 그리고 소의 느린 걸음걸이를 수십 번 드로잉 하여 얻은 형상이다. 그 어디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느림의 미학’ 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고스란히 전해온다. 〈채식주의자Ⅲ〉는 ‘불심’ 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스님의 모습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 인간의 형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담백한 컬러와 절제된 표현은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임춘섭은 대상을 수차례 드로잉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한 형태에 가려진 대상의 핵심에 도달한다. 즉 추상화(抽象化)를 통해 대상의 본질과 정수를 찾는 것이다.

동양적 감수성의 원천을 ‘달’ 에서 찾다.

“서구 세계에서는 달보다 해가 더 큰 영향력을 지녀왔던 터라 달이 갖는 동양의 시적 개념을 취해,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보고 싶었다. 달은 해보다 더 음성적(陰性的) 시적 구조와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소재다. 내게는 달빛이 연상시키는 단색적 사고(monochromatic thinking) 개념이, 해보다 더 진한 여백의 개념으로 이끈다.”

임충섭 작가노트 中

서양의 경우 ‘태양’ 이 그들의 사상과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데 반해, 동양, 특히 한국인에게 는 ‘달의 질서’ 가 큰 영향을 주었다. 절기와 날짜를 주관한 달은, 우리 민족에게 신앙에 가까운 존재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달이 풍요다산을 이루어줄 뿐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주재신(主宰神)적 존재라 믿어 정화수를 떠놓고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다. 심지어 달항아리를 제작해 달의 형상을 방안에 들이는 등, 달을 행성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겼다. 그에 반해 서양에서의 달은 불길함의 상징으로, 마녀나 늑대인간 등의 요물(妖物)들은 어김없이 달밤에 활동한다. 임충섭은 동양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며 태양의 생활권 아래 있었지만 오히려 태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의 시적 개념을 취하여 이번 전시의 작품을 구상하였다.

햇님은 달님의 여백이고 달님은 햇님의 여백이다.

해는 달이 사라진 뒤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달은 해가 사라지면 해의 빛을 반사(反射)한다. 임충섭은 이를 보고 ‘햇님은 달님의 여백이요, 달님은 햇님의 여백이라’ 고 말한다. 자연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없어도 서로 순환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다. 이와는 달리 현대 산업 사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재구성 되어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방식이다. 임충섭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폭력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

II. 작가 소개

1. 임충섭

임충섭은 1941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1980년 퀸즈 미술관(Queens Museum of Art) 전시와 맨하탄 소호의 O.K. 해리스 화랑(OK Harris Work of Art) 개인전을 시작으로 뉴욕 화단에 발을 디뎠다.

임충섭은 오랜 시간 뉴욕에서 거주했지만 작품의 내용은 동양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작품을 완성하고 '화력' 을 찍는 등 동양화의 기법을 작품에 이용한다. 이 같은 작품으로 뉴욕 화단에서 '동양적 정신성을 서구 조형의 틀에 매력적으로 녹여낸 작가' 로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 공부할 당시 그는 장욱진, 권옥연, 박노수, 노수현, 서세옥 등 한국 화단의 중요 작가들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특히 서세옥 선생에게 배운 '동양미술의 현대적 해석' 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임충섭은 '사각의 캔버스를 과감히 해체' , '동·서양 다양한 재료의 사용' , 그리고 '비디오 영상 작업' 등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미소니언 허쉬혼 뮤지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이태리의 그래픽 미술관, 오슬로의 헤니 운슈타드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 작가약력

1941 충북 진천 출생

196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3 뉴욕대학원(NYU) 졸업

수상경력

폴락 크래스너 재단

우경 문화재단 “올해의 예술가상”

뉴욕시의회 예술기금

메리 월쉬 사아프 예술재단 “스페이스 프로그램상” 수상

주요개인전

2010 학교재, 서울

2009 창아트 798, 북경

2008 Atelier705, 서울

2006 “Vanishing-Scape-Fan” , Asian American Arts Center, 뉴욕

2006 “되돌린 버릇” , 국제갤러리, 서울

2000 “빛의 건축” , 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 서울

1999 “실과 흙으로 치유하기” , 국제갤러리, 서울

- 1993 “개미 굴” , 도로시 콜딘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1980 O.K. Harris Gallery, 뉴욕

주요그룹전

- 2008 “The Edge of Compass” , 하바나, 쿠바
2005 “아모리 쇼” , 산드라 게링 갤러리, 뉴욕
2003 “2002년 9월 11일 운하 아래” , Asian American Arts Center, 뉴욕
2002 “Artists to Artists” , ACE gallery, 메리 윌쉬 샤아프 예술재단, 뉴욕
1997 제 2회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Africus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7 제 2회 광주 비엔날레, 광주
1997 “허시훈미술관 신소장품전 : 1992-96” , 소미소니언 인스티튜션, 허시훈 뮤지엄, 워싱턴 DC
1997 “퀸즈의 미술가들 : 20세기의 하이라이트” , 퀸즈 미술관, 뉴욕
1993 환기미술관, 서울
1983 “연례 공모전” 83’ , 퀸즈 미술관, 뉴욕
1980 “연례 공모전” ’ 80’ , 퀸즈 미술관, 뉴욕
1978 “O.I.A 그룹 쇼” , 볼로냐, 이탈리아 / PS1, 롱 아일랜드, 뉴욕

주요 작품 소장기관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허시훈 뮤지엄 :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 워싱턴 DC
로댕갤러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환기미술관, 서울
선재미술관, 경주
호주 국립미술관, 캔버라, 호주
Shoes Or No Shoes Depot, 코르티나, 벨기에
일신방직, 서울

III. 임충섭의 작품세계

1) 작가노트

임충섭

내 작업의 기조는 현대 인간 문명과 자연, 그 사이(between)에서 조형적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사이는 동양에서 여백이라고 불려왔고, 서양에서는 보이드(void)라 일컬었다. 이렇듯 현대 문명과 자연은 이분법(dichotomy)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동시에 상호 이해의 가능성도 있다. 마치 동양화의 여백이 미니멀아트와 상통하듯이 말이다.

서구 평론가들은 내 작업에 대해 개념미술, 미니멀아트 등으로 명명하지만 애초에 나는 그런 구분들을 의식하고 작업하지 않았다. 그저 작업을 하다 보니 현대미술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간 셈이다. 내게 여백은 현대 문명과 자연 사이를 잇는 다리다. 그리고 그 다리는 빛과 자연으로 환원되며 제 역할을 한다. 가령 도시의 콘크리트 정글 속, 치솟아 있는 인간 문명의 오브제 사이에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면, 그것은 마치 성자(saint)인 양 내게 다가온다. 이런 현대 문명 속 아이러니들이 내 작업의 테마가 되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달(luna)’이다. 서구 세계에서는 달보다 해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니왔던 터라 달이 갖는 동양의 시적 개념을 취해,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보고 싶었다. 달은 해보다 더 음성적(negative space/void space) 시적 구조와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소재다. 내게는 달빛이 연상시키는 단색적 사고(monochromatic thinking) 개념이, 해보다 더 진한 여백의 개념으로 이끈다.

설치 작업 〈월인천강月印千江〉에서 나는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지상과 하늘의 연계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내 작업의 시제는 ‘지금’이다. 세계의 모든 도시는 자연을 파헤치고 가공한 것이다. 그것이 현재 지구의 모습이다. 이는 내가 일 하는 작업 현장과도 같다. 그곳에 파헤쳐진 흙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이 내게 준 여백이기도 하다. 흙은 현대인의 자연 복귀에 대한 열망을 뜻한다. 이 도시 공간에 모습을 드러낸 자연, 즉 달과 흙은 내 작품의 진행 과정이거니와 정신적 흔적, 그 떨림(tremor)이다.

과거는 현재에 흔적을 남긴다. 정신에도 마찬가지다. 예술은 출발과 끝이 가장 중요하고, 불교 또한 내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내가 서 있는 이 도시 문명과 내가 열망하는 자연의 틈이 내 마음의 여백이다. 또한 불교는 내게 공, 그러니까 여백의 종교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예술은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2) 임충섭

엘레노어 하트니 / 미술평론가 - 아트 인 아메리카

임충섭의 작품 〈월인천강月印千江〉은 글자 그대로 땅과 강에 비치는 달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처진 그물 아래, 한 뼘 크기 그림자 못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 위로는 점점 차고 이지러지는 달 이미지를 담은 비디오가 상영된다. 달의 움직임은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오디오 음향과 어울리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 삶의 리드미컬한 뒤섞임을 들려주고 있다. 이 조합은 미술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명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즉 달빛 아래 고요히 켜 스타일(zen style) 정원에 앉은 느낌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또한 과거 한국의 철학자 이황과 기대승의 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강물에 비치는 달의 모습은 달의 본질을 담은 것인가? 아니면 단지 달빛과 연못의 고요함에서 비롯된 환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인가? 작품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각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인가?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용어로 질문해 본다면 ‘재현’된 현실 외에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거나 하는 것인가? 보름달과 초승달을 오가며 천천히 변해가는 달의 모습은 텅 비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지닌 충만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이황과 기대승의 대화에 흘렀을 평정을 관조내지 성찰 할 수 있는 것이다.

〈월인천강〉은 시간의 성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역사적으로 시간은 달의 회전주기에 따라 ‘월’로 구분되어 시각화되었다. 달의 변화는 조류의 변화, 여성의 생식주기, 그리고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달의 변화는 이제는 잊혀진 농경 사회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또한 달이 드러내는 시간의 개념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재구성된 산업사회의 시간 개념과 뚜렷이 대조된다.

임충섭의 작품은 이렇듯 명백히 대조되는 현실을 매개하고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외국에서 지냈고 현재도 뉴욕에 살고 있다. 농사를 지었던 유년 시절의 경험과 불교에서 영향 받은 감성이 포스트모더니즘적 기법을 통해 직조된다. 바로 그 두 가지 현실의 갈라진 틈 사이에 그의 작품이 존재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그가 도시의 거리와 보도의 깨진 틈에서 가까스로 숨 쉬는 자연의 잔존물을 따로 구해내고 상찬하는 시도이자, 은유적으로 그가 지닌 자연에 대한 기억을 현대 도시 생활에 겹쳐놓는 시도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와 시골의 풍경을 암시하는 폐기물을 조심스럽게 배열한 ‘도시 화석’에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접근으로, 임충섭은 한국의 전통 농기구나 악기들을 참고해 풍경과 건축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작품에서 임충섭은 시적인 감성과 불교적 감성을 결합시킨다.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은 모래알갱이에서 세계를 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와 “모든 사물은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를 떠올리게 한다. 반면 그의 작품은 거대한 우주적 의식을 제외하고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불교의 영원한 현재를 일깨우기도 한다. 결국 임충섭의 모든 작품은 현재에 존재하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현재를 경험하며 과거를 재창조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리하여 임충섭은 명료성에 영감을 받은 불교도로서 T. S. 엘리엇(T. S. Eliot)가 표현한 예지를 찬양한다.

우리의 모든 탐구의 끝은 우리가 출발한 곳의 도착이 될 것이고 이제 그 곳을 처음으로 알게 되리라. _T. S. 엘리엇, 〈네 개의 사중주〉

3) 임충섭의 뿌리 깊은 그림

최윤희 / 미술사학자

탁월한 작품은 미술 평론가 월터 페이터(Walter Pater)가 ‘스타일’이라고 부른 취향의 승리이다.

스타일은 작품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걸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스타일을 통해 작가의 취향과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과 숨결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스타일은 작가가 과거와 현재 예술 문화의 정수를 천착하고 연구해온 경험의 축적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임충섭은 확연히 구별되는 두 문화권인 한국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두 예술 문화 중 가장 뛰어난 부분들을 모아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서양의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임충섭이 한국의 시골에서 사용되는 공예품을 사용해 드러낸 자연의 이미지는 놀랍도록 매력적이다.

때로 그의 작품에서는 우주적인 것이 지상의 것과 만난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감성, 이것들을 무한대의 시간으로 얼싸안고 있다. 이는 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를 영원함 속에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흘러나온 임충섭의 이미지와 개념은 서양 현대미술의 긴장감 있는 재탄생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재탄생은 동서양의 걸작이 지닌 탁월한 요소를 다시 만날 기회를 마련해준다. 임충섭의 새로운 작품 〈월인천강月印千江〉은 이 예로 볼 수 있다.

천이 늘어뜨려진 벽으로 두 개의 달이 비추어진다. 이 두 개의 달은 비디오 장치를 통해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잔잔한 물 위에 비치고 있다. 벽에서 나타나는 달은 물 위로 보이는 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달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작품의 제목은 ‘천 개의 강 위에 비추는 천 개의 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월인천강〉은 신유학의 이분법인 이(理, 관념적 존재인 본체)와 기(氣, 유물적 존재인 현상) 또는 현실과 환상(현실보다 현실적이지 않은)이라는 주제에 대해 숙고하도록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품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인공적 달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즉 〈월인천강〉속의 달은 시각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온 한국 농경 사회의 달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난 천 년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지각되어온 달의 실존을 껴안음으로써 더욱 아름답다.

농사를 짓고 낚시를 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달은 태양보다 더욱 친근한 존재였다. 음력을 통해 계절과 조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식으로 그들은 오래도록 달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그들이 달에게 정성을 바치는 풍속을 만들어온 것은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이 선택을 통해 그들의 정신적 전통을 유지할 가장 풍요로운 보관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달은 늘 손에 만져질 듯 가까이 있는 시적 존재이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껏 뛰어 올라 달과 함께하기를 기원하게 된다. 한국의 현대 시인 이경림은 〈달〉이라는 시에서 달이 얼마나 감성적인 존재인지를 노래했다.

“아 어떤 웃기는 사랑 하나가 밤마다 중천에 떠올라 저리 흰 밤을 세우나”

서양의 설치미술 계열 작가가 이런 신념과 구상을 최선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이는 임충섭 작가가 양식사적으로 심도 있는 맥락을 풀어내면서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임충섭의 〈월인천강〉은 과거의 전통적 시각과 현대의 기술적 요소를 통해 자연과 물질에 대한 지각이 통합되는 곳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는 전통 미술과 급진적 미술 중 어느 일방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깊숙이 결합된 〈월인천강〉은 완벽히 구성된 현대의 인공물을 통해 우리가 순간을 영원처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초대해준다.